

사랑이 빛이 되었다.

빛: 2015년 7월 25일에 종신서원 10년 이하 수녀님들의 국제 모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저희가 체험한 친교, 기쁨, 신앙을 이야기하기 위해 빛보다 더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들에 대한 빛과 친교 안에서 사는 새 생명의 빛이 여정 전체를 비추어주었습니다.

은총이 가득했던 이 모임의 종결은 끝이 아니라 세례성사로 받은 새 생명을 충만하게 다시 살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새 생명은 더 의식적이고 교회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더 깊고 상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매료시키는 우리의 친교를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매일 매일 역동적으로 영적 식별, 기도, 양심성찰, 죄의 아픔(참회), 성체, 복음적 권고, 형제적 생활에 관한 내용을 심화시켰습니다. 이 내용들은 새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선물들이었으며 자신이 경험한 하느님 맛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구원의 체험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직 한 가지는 이 선물,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성령과 공동협력(시너지)을 통해 이 생명이 항상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적 여정은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며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과 우리 모두는 형제며 자매라는 것, 즉 한 가족임을 체험하는 것을 향해 있습니다.

저희는 하느님의 사랑을 관상했으며 또한 하느님과 관계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파괴한 죄의 비극에 대해서도 관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은 하느님의 필요를 아주 강하게 느끼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리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예”를 쇠신하고자 하는 바램과 수도자이며 구원받은 여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바램을 드러냈습니다.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바오로 가족의 기원이 되는 장소를 성지순례하면서 성 바오로, 알베리오네 신부님, 마에스트라 테클라, 디모테오 자카르도, 모든 거룩한 바오로인들의 삶에 육화되고 성장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인성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약함, 한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변모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내어놓았습니다. 그분들은 강한 신앙으로 성자의 영 안에서 생명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사람인 복자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훌륭한 영적 신부님의 지도에 자신을 맡겼으며 교회 안에서 절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빠스또렐레도 (영적 지도자에게) 지도 받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사람들의 신앙을 동반하기 위한 준비 즉, 우리의 영적 정신을 심화시키는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친교의 선물이 드러나도록 하며 교회 안에서 기쁨과 희생으로 일치된 성사적인 몸으로서 사는 것을 상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친교적 관점은 또한 성바오로 수도회 총 통솔이신 Celso Godilano 신부님께서 폐막 미사에서 하신 강론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체험은 저희가 형제적 생활과 우리 수도회의 사목 사명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각자는 자신의 지역구로 돌아가지만 더 이상 개인(individuo)이 아니라 인격체(persona) 살아가는 은총을 청합니다. 즉, 주님께서 저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모든 것을 간직하면서 하느님의 맛과 구원의 체험 그리고 자매로서 함께 생활한 체험에 대한 기억을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persona)으로 돌아가길 청합니다.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저희 마음에 뿌려진 생명과 빛의 씨앗이 매일 매일 자라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친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그리고 마지막에 성 바오로처럼 저희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갈라 2,20)라고 말할 수 있는 은총 그리고 빠스도렐레로서 세상에 빛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우리의 친교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로 동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Per il gruppo,
sr Marilyn Delalamon, sjbp